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아픔은 누구의 몫인가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최근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에게 사전 설명이나 합의 없이 이를 결정했고, 이 참담한 현실은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시물에 강제노역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등재에 동의한 것은 일본 대사의 불확실한 약속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결국 과거의 아픔과 국민의 실망으로, 나아가 철저한 외교실패로 돌아왔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묵인하고 동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외교부는 일본 대표가 언급한 "모든 노동자"라는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수정해 인용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또 한 번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사후 정당화에만 급급했던 외교부의 입장발표는 국민의 이해를 얻기보다는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민족의 역사에 큰 오점을 가져왔다. 또한 '왜 국민

에게 이러한 고통을 또다시 안겨주는가?, 무엇이 국가에 이득이 되기에 식민지 정책과 인권 침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등재에 동의했는가?'라는 의문까지 남겼다.

이번 사도광산의 등재는 여러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역사 왜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지금까지 힘들게 주장해왔던 세계 속 역사적 진실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국제적으로 약화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외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런 독단적인 결정은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례가 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것보다도 강제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포함하는 것만큼은 이번 등재 논의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민족의 존엄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민족에게 또한 번상처를 주는 행위가 된 것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는 2015년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할 때 권고에 따라 1940년대 강제노역 사실을 안내판 등에 표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며, 이에 더해 왜곡할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물론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2024년 7월 27일 일본이 축배를 들 때, 우리 선열들은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또한, 이 무거운 과거에 대한 진실 외면은 일본뿐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책임으로 남아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책임자들은 현재의 선택이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사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결코 미래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단순한 문화유산 하나의 등재를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세계 속에서 얼마나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향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외교적 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며,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절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가져온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역사와 국민의 분노를 되살렸다는 점이다.

이 아픔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社說

##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해야

광주·전남도 철회 요구 잇따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논란에 반작용으로 치러졌다.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을 기려야 할 모두의 축제가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물 한 사람으로 파행으로 치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당장 민주당 전남도당은 제79주년 광복절 긴급 논평을 통해 "광복절을 두 쪽 낸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켜낸 독립기념관장에 친일청산을 반대하면서 친일파들을 비호해 온 김씨의 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전남도당이 설명이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특별성명을 통해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광복회 광주지부는 '김형석은 이념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우려를 야기하는 인물'이라며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김관장은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일삼고 독립기념관장 면직 자리에서는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신민이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1948년으로 본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다. 광복회 등에서 그를 신우파를 지칭하는 '뉴라이트' 성향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센 민심을 직시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나라의 명예를 더 이상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일본은 환호하고 우리 국민은 상처를 받았다'는 주장도 되새겨야 한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들의 값진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15일은 일제의 만행에서 해방된 79주년 광복절을 명심해야 한다.

##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적조피해 최소화

전남 동부권서 연일 적조 출현

전남 동부권 득량만과 외나로도 해역에서 연일 적조생물이 출현한다는 소식이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해 나섰다. 최근 몇 년간 전남에서는 여름철 고수온이 지속됐지만 적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키는 등 적조 피해 예방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고흥 외나로도 해역과 고흥·보성·장흥으로 둘러싸인 득량만 해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적조의 주범인 코클로디니움에 연일 출현하고 있다. 지난 13일 외나로도 해역에서는 m당 2~18개체, 득량만 해역에서는 20~100개체가 출현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전남해역에 적조예비특보를 발령한데 이어 9일 적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다. 현재 득량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는 적조주의보가, 전남 서부 앞바다와 여주만, 가막만에는 적조예비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적조는 수온 상승과 오염 등으로 적조류가 대량 번식하면서 바다속 산소량을 떨어뜨려 물고기 등이 질식사하는 바다의 재난이다. 특히 양식장 등 어패류가 집단 서식하는 곳에 적조가 덮치면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할 경우 어민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죽은 어패류를 처리하고 이들 어패류의 부패로 인한 2차 환경오염도 간과할 수 없다. 적조가 닦쳐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적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은 적조생물의 밀도를 높여 주변 해역까지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매년 찾아오는 적조를 막을 확실한 방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적조 유입 시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개인 방제 장비를 가동하는 등 어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조의 최대 주범은 해양오염이다. 매년 찾아오는 바다의 재난을 막는 근본적 방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홀리데이스버그의 한 상점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살아 있는 '마멋'이 들어가 있다. 상점 주인은 어떻게 마멋이 기계 안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멋에게 가게 이름을 따 '커스터드 대령'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인형뽑기 회사에 연락해 기계를 열어 마멋을 풀어주었다. AP/뉴시스

### 서석대



"시인이여, 저무는 가을 바다로 가서 전어나 들쭉 떨어 달라고 하자/잔뼉을 넣어 들성들성한 크기로 떨어달라고 하자~/가을에는 사람의 몸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슬픔 있으니/그 빈자리에 가을 전어의 탄력 있는 속살로 채우자/맑은 소주 몇 잔으로 우리의 저녁은 도도해질 수 있으니..." 정일근의 시 '가을 전어'는 읽을 때마다 맛있고 멋지다. 8월 하순, 바다에서 갓 잡은 전어를 찜해 썰어 된장에 찍어 먹는 맛은 고소하고 달짝지근하다. 가을을 앞두고 슬그머니 빠져나간 마음의 빈자리를 맑은 소주 몇 잔으로 위로받겠다는 감성도 아름다운 극치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고 했다. 봄에는 도다리가 그만이고, 가을에는 전어가 최고라는 얘기가. 전어는 가을이면 뼈가 부드러워지고 살이 오른다. 이때 먹는 전어는 회뿐 아니라 무침이나 구이로도 제격이다. 전어 새끼로 담은 연식젓, 내장을 담은 전어 속젓, 전어의 위를 모아 담은 밤젓도 미식가들에게는 유명한 음식이다. '가을 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 말',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전어 한마리가 햅쌀 밥 열 그릇 죽인다'는 속담이 회자되는 것도 이맘때다.

전어의 본고장은 광양 망덕포구였다. 전북 진안 데미섬

에서 솟아나 500여 리를 달려온 섬진강과 광양만과 합류하는 이곳은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갯벌이 발달해 예로부터 전어잡이가 성행했다. 해질녘 광양만에서 전어를 가득 담은 배가 망덕포구로 돌아오는 광경은 광양10경 가운데 하나인 망덕귀범(望德歸帆)이다. 보성 읍포에서 장흥 회진, 강진 마량, 완도 금당도로 이어지는 남해안도 전어 주산지다. 특히 이곳 전어는 물살이 센 서해안과 달리 잔잔한 바다에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 '떡전어'라고 불린다. 지금도 이곳에서 잡히는 전어는 최고를 자랑한다.

가을의 시작인 처서를 1주일 여 앞두고 보성과 광양에서 전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16~17일 보성 읍포출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보성전어축제는 맛과 멋이 조화로운 '5감의 향연'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에 예비 지정된 읍포항의 미래를 엿보는 기회로도 중요하다. 23~25일 광양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광양전어축제도 아름다운 풍광과 고소한 전어가 일품이다. 날씨가 더워지는 정치와 폭염보다 더 살인적인 경제가 육박하는 지금, 보성과 광양을 찾아 갯벌과 전어에 저민 마늘 몇 쪽 곁들여 맑은 소주 한잔으로 위로받고 싶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